

발화(發火)의 비밀

심 문 보

(한국위험관리(주) 사장)

보험 사고의 보상시에는 보험의 상호 부조성이 현실로 성취된다는 뜻에서 “손해사정은 보험의 꽃이다”라고 그 효용성이 긍정적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보험 사고 원인의 면책(免責)여부 및 보상금의 고하를 놓고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추리소설 뻘치는 드라마가 전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실례로서 일본의 보험회사에서 손해 사정인이 겪은 보험 사고의 실화 한가지를 소개 한다.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운 여름의 오전 만나절 동안 수리 공장을 돌고온 히라노(平野) 손해사정인은 냉방이 된 사무실에 들어와서 한숨돌리고 있는데 과장에게 불려 갔다.

“늦어서 미안하지만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즉시 현장에 가 봐야 하겠네”

과장은 정말로 미안한 듯이 말했다. 눈치채지 못했지만 창가의 의자에 낮익은 가와모도(川本) 대리점 사장이 히라노에게 눈을 돌리더니 애교있는 등근 얼굴을 숙이면서 “오! 히라노씨 이런 시간에 미안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가와모도는 중견 보험 대리점 주인으로 화재 보험 계약이 많고, 고객에 대한 봉사에도 열심이며 특히, 사고 처리에도 협력적이어



서 사내 평판이 좋다. 이러한 대리점의 사장이 일부러 나왔으니 안갈 수 없겠구나하고 히라노는 채념했다.

“어디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났습니까?”

“장소는 동경 시내이고, 전소된 모양이에요”

“그럼 자세한 것은 차속에서 이야기 하시지요. 가십시오” 히라노는 즉시 출발 하였다.

현장에서는 벌써 검증이 시작되었는지 비상선이 쳐져 있고 경찰관과 소방서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구경꾼을 헤치고 보험 계약자인 세기구지(關口)씨가 가와모도 대리점 사장을 알아보고 쫓아와서 손을 잡았다.

가와모도 사장의 말에 의하면 세기구지씨는 30세를 넘은 약간 뚱뚱한 편의 호인으로 동경 신바시(愼橋)에서 자그마한 양식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가족은 처인 요고(洋子)와 아들, 딸 그리고 80세가 넘어서 노쇠하여 누워서 지내는 조부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화재 원인은 판명되었습니까?”

의례적인 인사를 끝내고, 히라노 손해사정인이 물었다.

“그것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가게에 가 있었고, 집에는 안식구와 할아버지 뿐이었는데 마침 집사람이 장을 보고 돌아온 때에 부엌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안사람 말로는 집안 쪽의 할아버지 방에는 불

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부역의 가스를 켜놓고 잊어버리지 않았는가하고 생각합니다만….”

“거의 완전히 타버렸군요 불이 빨리 번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차가 늦게 도착했는지요?”

“양쪽 모두인가 봅니다. 인근 사람들이 뛰어나왔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연소 방지도 힘든 처지로, 저의 집 소화재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세기구찌씨의 친척이 있습니까?”

“아니예요. 가게의 웨이터를 하는 사람의 집이 가까워서 달려왔으나, 노인네를 구출해 내기에도 손이 모자라서 가재 도구는 어느 것 하나 들어내지 못하고 이 모양입니다.”

히라노 사정인은 계약자 세기구찌씨가 가르키는 약 35평 건물이 무참히 타버린 몰골에 시선을 보냈다. 현관으로 보이는 기둥 몇개가 하부에 원형을 남긴 외에는 모두 새까맣게 터버리고 지붕은 완전히 함몰해서 그 형태를 찾아볼 길이 없었다.

히라노는 이 건물의 재축 가격을 평당 18만엔(약144만원)으로 하면 총 603만엔(약 5,040만원), 1946년경의 건축으로 보면 약 45년의 사용 년수가 됨으로 50%의 경년 감가율을 곱하면 약 300만엔(약2,800만원)가량이 된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 물건의 시가(保險價額)와 보험 청약서상의 보험가입금액이 거의 일치해서 일부보험(一部保險)의 문제는 없겠구나—이 정도의 것을 재빨리 머

리속에서 계산하고, 히라노는 다시 한번 가와모도 대리점의 보험계약 인수 방법의 정확성에 감탄하였다.

그는 사진을 찍고 도면 등을 작성하면서 불이난 자리를 한바퀴 조사한 뒤에 40세쯤으로 사람이 좋아 보이는 소방서원에게 접근하였다.

그는 한눈에 히라노가 보험회사 사람임을 알아차린듯 “보험회사에서 왔군요, 피차 이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하고 방긋이 웃으면서 묻기도 전에 화재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섰다.

주민의 증언으로 발화 장소는 세기구찌씨 집인 것은 틀림없으나, 발화 지점에 의견이 엇갈려서 세기구찌씨의 처인 요고부인은 부역이라 하고, 어느 사람은 집안쪽이라 말하고 있으나, 어느 쪽에도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한다.

비전문인에게는 조금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전기 기구나 가스 기구로부터의 발화는 아무리 심한 불탄 자리라도 들추어보면 거의 확실하게 발화 지점이 판명되는 법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부역 및 그 주변으로부터는 어느 것 하나 발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외의 장소에도 불기있는 물건은 놓여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 화재는 원인 불명으로 처리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히라노 사정인은 세기구찌씨 가족의 피난처인 웨이터의 집에 가 보았다.

세기구찌씨의 소개로 그의 처인 요고부인을 만나 보았다. 자그마

하고 눈에 띠는 미인은 아니지만 현명하게 보이는 커다란 눈과 얇전히 오무린 입술 등 전체적으로 품위있는 자태에 너그럽고 불임성 있는 느낌을 받아서 히라노 사정인은 한눈에 호감을 갖았다.

히라노 사정인은 요고부인을 동정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요고부인은 소방관에게 화재 원인이 부역의 가스를 끄지 않고, 장보러 갔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고부인의 행동은 보험 약관상 중대한 과실로 면책이 되어 보험에 가입한 보람도 없이 손해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옆집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직 당국에서 문책을 당할지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고 겁나는 일이지만 사실이니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요고부인의 대답은 체념적이면서도 비장감마저 느껴지는 것이었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히라노 손해 사정인은 요고부인의 답변에서 사람의 정직성 외에 어떤 사정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사이엔가 종적을 감추었던 가와모도 대리점 사장이 밖에서 돌아와서 히라노 사정인을 마루로 살짝 불러냈다.

일상 명량한 사람 답지않게 침통한 표정으로 가와모도 사장은 히라노 사정인에게 귓속말을 했다.

“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은 세기구찌씨의 아들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화재 직전에 학교 풀에서 돌아와서 집안쪽에서 불이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 집안쪽이라면 그 노인이 자고 있던 곳을 말하는 겁니까? ”

“ 그래요 글썸 이 노인은 89세인데 완전히 허탈 상태로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손주 부부가 돌봐주지 않는다고 공연한 불평을 하고 지냈던 모양입니다.”

“ 아이가 본 것은 그것 뿐입니까? ”

“ 글썸 그게 문제예요 ‘내가 불인줄 알고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할아버지가 불박이 장 옆에서 불타는 것을 불이야 하는 소리도 없이 쳐다 보고 있었으며, 그 불박이장 속에서 맹렬한 불꽃과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

“ 그런데 어머니인 요고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된다고 입을 다물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친해져서 늘 상 귀여워했던 어린아이기 때문에 기탄없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공연히 화내면서 이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소리도 한적이 있다는 겁니다.”

“ 가와모도 사장님, 조사 잘해주셨습니다.”

동경 시내에는 어둠이 깔리고 전철역 근처 상가에는 휘황한 네온이 반짝이며 뒷골목 대포집에는 주객으로 분비고 있었다.

조출한 외식집에서 저녁상을 앞에 놓고 반주를 들면서 가와모도



대리점 사장과 히라노 손해사정인은 오늘의 손해 사정 결과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 사실은 할아버지가 피해 망상증으로 방화를 했는데, 손주며느리인 요고부인이 이를 알고도 병든 할아버지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실화 책임을 스스로 지고 나선게 아니겠어요.” 가와모도 사장의 말에 히라노 손해사정인도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하였다.

“ 저도 요고부인 자신의 실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인의 방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고부인이 실화 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면책 및 손해 배상 등 온갖 물질적인 손해와 사직 당국 및 주변 사람들의 추궁 등 정신적인 피해를 무릅쓰고 병든 시할아버지를 위하여 발휘한 희생 정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와모도 사장의 감정어린 말에 대하여 히라노 사정인도 같이 수긍하였다.

“ 저도 동감입니다.”

“ 그런데 제 고객인 세기구찌씨의 손해 보상 문제에 있어서 화재 원인을 요고부인 말대로 가스로 인한 실화로 하거나, 아들 말대로 노인의 방화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양쪽 모두가 보험 약관상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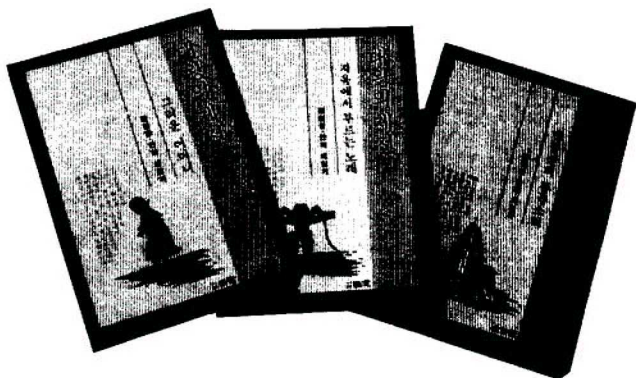
책으로 되어 있는 중대한 과실이 나, 방화로 취급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요? ” 가와모도 대리점 사장이 걱정스레 물었다.

“ 그렇치 않으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보상 여부를 가름하는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오늘의 화재 원인은 노인의 방화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세기구찌씨의 어린 아들의 사심없는 순진한 목격담이 이 사실을 증거해 준다고 보아야 하고, 둘째로 요고부인의 가스로 인한 실화주장은 현장 조사 소방관의 가스로 인한 발화 사실이 없다는 전문적인 견해에 따라서 노인의 방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도의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 히라노씨는 오늘의 화재 원인이 노인의 방화에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세기구찌씨에게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가요? ”

“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세기구찌씨 부부에게 물어 보았는데 이 보험 계약은 세기구찌씨가 가게에서 노인은 커녕 부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와모도 사장님에게 매년 가입하여 왔다고 합니다”

대왕의 제전



“따라서 친족의 방화는 화재 보험 약관상 면책이 되나, 이 건은 방화라도 노인이 손자인 세기구찌 씨에게 보험금을 타게해 줄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가 아니기 때문에, 동 약관 단서 조항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역시 히라노씨는 손해 사정 전문가이십니다. 세기구찌씨와 헤어질 때에 제 좁은 소견으로 지레 짐작해서 보상이 어렵겠다고 말해서 세기구찌씨는 실망하는 눈치였는데 참말로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술 한잔 받으세요.”

“고맙기는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술을 주시니…….”

거나하게 취한 히라노 손해사정인과 기와모도 대리점 사장의 대화는 귀가 길의 택시 속에서도 이어졌다.

취중에도 기와모도 사장은 감개 어린 목소리로

“오늘 요고부인의 시할아버지를 감싸는 희생적 정신에 감명 받았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저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찌 기와모도 사장님뿐이겠어요. 만약 이것이 알려진다면 노령화 사회를 살아 가는 일본 사람 모두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뒤에 보험계약자 세기구찌씨에게는 본 건 화재 보험 계약이 부모된 일본 AIU보험주식회사에서 가족의 화재 손해가 전액 보상되었다.(일본 AIU보험회사 발간, The Adjuster's Report 에서 발췌) ●

그간 발행된 북한 관련 책자들에게 나타난 통상적인 북한 생활과는 달리 주먹세계, 남녀간의 사랑, 수용소에서의 인간 이하의 생활, 관리들의 부정 부패 현장 등을 생생히 밝히고 있어 독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강철환·안혁의 수기 ‘대왕의 제전’은 총3권으로 되어 있으며, 1권은 강철환의 이야기, 2권은 안혁의 이야기, 3권은 강철환과 안혁이 만나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고생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까지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향실 출판사가 야심을 가지고 제작한 이 체험기는 일어 번역, 영화, 드라마까지도 계획, 추진 중이다.

저자들은 KAL기 폭과범 김현희의 가족을 수용소에서 만난 것을 이 책 2권에서 밝히고 있으며, 귀순 간첩 오길남씨는 부인 및 두 딸이 수용소에 있다는 저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김일성주석 내 딸과 아내를 돌려주세요”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특히 조총련계 재일 교포들의 복송 생활 및 그들과 결혼한 수많은 일본인들을 수용소에서 만난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 재일·재미교포들에게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6.25때나 1.4후퇴때 월남한 가족을 둔 월남자 가족들의 수용소 생활을 밝힘으로써 수많은 실형민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 지구상의 마지막 수용소!!

그리고 그 곳에 수용된 우리 동포들의 인간이하의 생활.

과연 그곳에도 인권이 존재하는가? 를 눈물로 날날이 밝힌 폭로수기임.

1부: 병풍상의 통곡소리/강철환 편
2부: 지옥에서 부르는 노래/안혁 편
3부: 그리운 어머니/강철환, 안혁 편
도서출판 향실(TXL 556-4077)
각권 5,000원